Life p/14

속옷 브랜드 남성모델 눈길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12일 화요일 제3034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0

박지영 첫 미국 단독콘서트

이석기 항소심 징역 9년 감경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기업마다 교황 마케팅 한창

가라앉은 한국경제 돌파구 기대…관련상품 봇물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기업의 마케팅이 한창이다.

재계는 최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가 교황 방문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황은 가톨릭 세계청소년대회가 열린 브라질을 5일간 방문했는데, 브라질은 5500억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1984년과 1989년 교황이 한국을 찾았을 당시에도 세계 각지에서 신도들이 몰려 호텔 객실 예약이 꽉 차고 관련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렸다. 1984년에는 기념품 판매액이 50억원대에 달했다.

이번 교황의 공식 수행원은 300~400명에 달하며 경호원, 전세계 2000여명의 취재기자, 관광객, 가톨릭 신자 등을 포함하면 10만명 이상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복미사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일대의 호텔들은 이미 객실 예약률이 80%를 넘어섰다.

◆교황 특판상품·기념품 눈길

은행권은 특판상품 등 다양한 마케팅에 나섰다.

천주교구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광화문 시복식 미사 때 모자·우산 등을 배포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인다. 우리은행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광화문 시복식 미사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은행 로고가 새겨진 모자 50만여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황의 수행원과 신부·수녀 등이 사용할 우산 1000여 개를 제작했다. 모자·우산 등을 합치면 화물차 17대분에 달하는 물량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천주교 16개 교구 가운데 7개 교구 주거래 은행을 맡고 있는 등 천주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할 교황 방한 기념 주화를 11일부터 예약 판매한다.

우리은행 모자·우산 배포
하나은행 '바보의 나눔'
LGU+ 방송중계 점검

하나은행은 천주교 산하 '바보의 나눔' 재단에 기부하는 '바보의 나눔 금융상품' 3종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수시입출금식 통장, 적금, 체크카드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가입 좌수당 100원씩을 은행이 바보의 나눔 재단에 기부한다. 하나은행은 또 오는 17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도 전원에게 모자를 나눠줄 계획이다.

◆국내외 방송중계 주력

교황의 방한을 맞아 통신업계도 분주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방문 행사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된 LG유플러스는 국내외 방송중계는 물론 미디어 토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 음성, 대전 등 교황 방문 현장 7개 곳에서 생중계할 수 있게 100석 규모의 현장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방송중계차량 등을 현장에 고정 상주하기로 했다. 전국 7개 교황 방문 현장에서 생중계되는 방송은 155Mbps 방송중계 전용망을 통해 LG유플러스 안암방송센터로 보내진 뒤 10Gbps의 여유로운 대역폭을 통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구축된 국제방송센터(IBC)로 전송하게 된다.

이번 교황의 한국 방문은 전 세계로 방송이 중계되는 만큼 LG유플러스는 천주교 방한준비위원회와 함께 방송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둔다는 계획이다.

구성헌 LG유플러스 데이터사업담당은 "동·하계 올림픽에 이어 교황 한국방문 행사까지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운용 노하우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도 교황 방한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을 마련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그룹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복식에 대비해 롯데호텔에 5000석 규모의 프레스센터를 마련한다. 롯데는 객실뿐 아니라 레스토랑, 백화점, 면세점과 연계해 다양한 '교황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황 의전차량으로 선정된 기아자동차의 '쏘울', 공식 먹는 샘물로 지정된 하이트진로의 '석수', 공식 행사에 쓰일 미사주인 롯데주류 '마주앙' 등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교황이 아시아 첫 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한 만큼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도형·이재형 기자 mario@metroseoul.co.kr

2016전문대 정원 줄어 수시로 83% 뽑기로

현재 고교 2학년이 지원하는 2016학년도 전문대 입시모집에서 6900여명이 감소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201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11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모집인원은 21만9180명으로 올해 22만6085명보다 6905명(3.1%) 줄었다.

대학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문대 모집인원이 2015학년도에 4.8% 줄어든 것까지 포함하면 2016학년도 모집인원은 2014학년도 대비 1만8244명(7.7%) 감소한다.

시기별로 수시 모집에서 18만2297명(83.2%)을, 정시에서는 3만6883명(16.8%)을 선발한다.

수시는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자체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이 10만913명(55.4%)으로 가장 많고, 정시는 일반전형에서 가장 많은 2만4920명(67.6%)을 모집한다.

전문대는 수시·정시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다. 단,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윤다혜기자 yahi@

삼정도 수치 달아주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요환 신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장성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으며 삼정도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위해 존재하는 것 맞나"

박 대통령, 정치권에 쓴소리…경제 활성화법 등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 법안이 법안에 많이 있다"며 "그 것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게 보이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가계 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 협조를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금융,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턱 없이 부족한 숙박 시설을 확충하는 법,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 등은 청년가를 위해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도 이번 8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삭제 논란

기자 수첩
정혜인 <생활레저부 기자>

얼마 전 화장품 용기와 패키지에 표기돼 있는 제조원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제조업자 상호와 주소 삭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 방안을 관계당국에 전달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1차 또는 2차 포장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와 유통하는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 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제품에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제조업자 표기가 없을 경우 누가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소비자는 전성분 표시부터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상호까지 자세히 살피는다. 제조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게다가 제조업체는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생산하며 연구 개발을 통해 원료와 제품의 품질을 높여왔다. 그러나 표기를 삭제할 경우 유통업체는 원가가 낮고 품질이 떨어지는 원료·제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품질 저하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되고 장기적으로 화장품업계의 발전에도 해가 될 것이다.

이 논란은 식약처가 현행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발표하면서 우선 일단락 됐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소비자를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병행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시락 준비해 주세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이 길어지자 관계자에게 도시락 주문을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법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나

野 특검 수정안 제시에 與 "합의한 대로"… 결론 못내

여야간 합의를 이뤄낸 세월호 특별법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당 안팎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특검 추천권에 대한 추가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를 거쳐 12일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절충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추천권에 대한 수정 카드로 특별검사 임명법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특검후보추천위 7인 가운데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4인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게 돼 야당의 추천 권한을 사실상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합의한 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사안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국가나 여야, 유가족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위한 증인 채택도 겉돌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18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의 증인 채택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조현정기자

이정현 "호남 의원님들 긴장해야"

새누리당 이정현(전남 순천·곡성) 최고위원이 "(야당 의원들은) 긴장 좀 하셔야 할 것"이라며 "이제 호남 국회의원들 편한 세상은 다 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공천만 받으면 설렁설렁 해도 개표 시간만 기다리면 저절로 당선이 됐다"며 "그래서 공천 받는 게 우선이지 지역민들 마음을 얻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선거 행태가 대구 경북이나 광주·전남 쪽에서 수년 동안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것은 유권자에게도 불행"이라며 "그런 정치 속에서 결코 경쟁력 없이 온실에서 큰 나약한 정치를 함으로써 지역민도 손해고, 지역 발전도 손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도 손해였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청 관계에 대해 "당과 청은 공동 운명체"라며 "공동 책임, 무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관계"라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19일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에 제의

● 정부가 11일 북한에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을 19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냈다.

우리 측은 1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을 제시한 뒤 북측이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母子 보건사업에 137억 지원

● 정부가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母子)" 보건 지원 사업에 1330만 달러(약 137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남북 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WFP 지원 금액은 700만 달러, WHO 지원 금액은 630만 달러"라고 밝혔다.

한·미 군·보건당국, 11~14일 생물방어연습

● 한국과 미국의 군과 보건당국이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연습을 통해 서아프리카 지역에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자연발생적 질병과 인위적 생물위협에 대한 연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석기 내란음모는 무죄

"구체적 증거 부족"…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9년 선고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 김근래 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은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윤 일병 가해자 이송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관할이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11일 오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예하부대로 가해 병사들을 태운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로비' 야 의원들 소환일정 조율

신계륜 오늘 출석… 신학용·김재윤 13~14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당 신학용(62)·김재윤 의원도 각각 13일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11일 신 의원 등 변호인을 통해 각각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과 김 의원은 서종예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전후해 상품권 등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검찰의 1차 소환에 불응한 것은 당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14일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유선준기자

교황 시복식 준비 교통통제 시작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식(16일)을 위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단계적인 교통통제를 하고 있다. 시복식이 열리는 16일 오전 경복궁 광화문 시청역에서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 101개 버스 노선은 전날부터 우회 운행한다. /뉴시스

인권위에 억울 하소연해봤자…

군 조사 유일한 외부기관 – 진정사건 75% 각하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75%가량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각하 처리된 것 중 10%는 군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하고도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윤 일병의 진실을 밝힌 것은 인권위도, 군 당국도 아닌 제보자와 시민단체였다.

11일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권위가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한 것을 의미하는 '인용'이 된 사건은 75건(6.4%)에 불과했다.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는 875건(74.3%)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기각'은 213건(18.1%)이었다.

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2009년 78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매년 인용률은 3~6%에 머물렀다. 이는 인권위가 군 사건을 다룰 때 그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가 군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옥기자 mjk.mi@

구원파 소속 재독 의사 조사

유혁기 측근… 행방 추궁

검찰이 외국에 체류 중이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의 측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재독의사 김모(41)씨를 지난 6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도피 중인 혁기씨의 행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혁기씨와 관계를 비롯해 미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등을 조사했다.

김씨는 "혁기씨와는 사업상 관계일 뿐 그의 측근은 아니다"며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 전시회에서 혁기씨를 본 게 마지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내부 의사회 소속 종교 활동을 해왔으며 외과 전공의로 알려졌다. /장대하기자 vahs@

승객 안전·건강위해 안전문 설치

(왼쪽)1호선 사당역 2호선 을지로3가역 (서울메트로 제공)

지하철 개통 40년 "그땐 그랬지" (5)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올해로써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이 발전함에 따라 승강장 안전문도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예전에는 승객들이 실수로 선로에 떨어지거나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면서 터널 안의 탁한 공기가 밀려와 승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를 막기 위해 2009년 말에 120개 전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 완료했다. 다른 미설치 구간도 곧 설치 예정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 '길동이' 모집

서울시가 오는 10월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서울의 대표 거리예술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2014'를 만들어갈 자원활동가 '길동이'를 모집한다.

길동이는 '길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축제의 중심에서 직접 행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에는 총 130명의 길동이를 모집한다. 기획홍보·공연제작·운영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17일까지이며 참가 희망자는 하이서울페스티벌 홈페이지(www.hiseoulfest.org)에 접속 후 지원하면 된다.

최종선발된 자원활동가에게는 인증서와 티셔츠 및 ID카드, 자원활동가 매뉴얼 등의 물품이 제공되며 우수자원활동가에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창도 수여된다.

"살인적 경쟁 내몰린 학생들 구해줘야"

교육감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진국형 교육체제로 제2의 고교평준화 시대 열겠다
이달 중 자사고 3차 평가…무조건 폐지하는 것 아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복지 사회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후진적인 교육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교육체제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4지방선거에서 표현된 서울 시민들의 열망을 잘 읽어야 한다"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정책 전환 등을 통한 일반고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고교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자사고가 원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함으로써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설립목적에 맞는지, 사교육 유발 효과는 없는지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운영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중 등 특성화중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조만간 서울시내 14개 자사고의 3차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일반고-자사고 제자리 찾기"

조 교육감은 또 "자사고 폐지 정책에 앞서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먼저 제기돼야 맞다"면서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큰 정책 흐름 속에서 자사고의 자리를 찾게 하는 노력이 함께 가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성시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고 교과 자율성 확대 ▲직업 부적응학생을 위한 맞춤형 듀얼체계 구축 ▲재정적 지원 ▲성고 진취적인 교장들의 비선호 일반고 우선 부임 ▲일반고 직위교육 위탁 ▲일반고 내 직업반 특융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애초 올해 14개 자사고가 평가 기준을 미달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반고 전환을 2016학년도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 시민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이 선진국형 교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라며 "시민 여러분도 나무보다 숲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교육은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짜여있다. 이렇게 아이들을 살인적으로 교육경쟁시키는 이 방식을 누군가는 멈춰야 된다"며 "교육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다혜기자 sdh@metroseoul.co.kr

태극기 휘날리며 광복절을 앞두고 강원 원주시 도심에 설치된 태극기 바람개비가 주목받고 있다. 무실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태극기 달기 운동 적극 동참과 다각 사랑 마음을 전하려 최근 무실동 주민센터 인근 공터에 태극기 바람개비 400여 개를 설치했다. /연합뉴스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 10년새 최악
노원구 17% 등 평균 33.6% - "세수 줄고 복지 늘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한 때문이다.

서울시는 11일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로 2005년보다 2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를 기록한 이래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 2009년 50.8%,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 2013년 41.8%, 올해 33.6%를 기록해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5%), 중구(63.5%), 서초구(63%), 강남구(64.3%)로 2005년 10개 구에서 올해 4개 구로 감소했다.

전체 구의 절반 이상인 19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20~30%대로 열악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로 17.2%였다. 이어 강북구(20.4%)와 도봉구(21.2%)의 재정상황이 나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입은 2010년 3조 5000억원에서 올해 3조 1000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예산은 7조 2000억원에서 9조 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이국현기자 rok rd@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斌斌動不停 下月上學

「電子眼」轉化可「看」AI絲

metro France

Cannes, Paris, Marseille : qu villes françaises figurent da des pires villes du monde

불친절한 도시 '톱10' 佛 3곳

미국 잡지사 '콘데 나스트'가 독자 수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칸느, 파리, 마르세유가 각각 관광객에 불친절한 도시 2위, 4위, 5위를 차지했다. 1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가 선정됐다. 칸느의 경우 관광객이 가지는 환상과 다른 실망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친숙한 도시지만 관광객에게 초대적이지 않은 태도와 불친절함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metro Russia

Случайность. Под строительным мусором нашлось надгробие

공사현장 쓰레기서 유물 발굴

러시아 도시보호운동연합 회원인 알리미 팔코프가 모스크바 근교의 건축 현장에서 18세기 유물이 대량 출토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팔코프는 "공사 현장 쓰레기 더미에서 우연히 조각들의 일부가 발견됐다"며 "이를 눈여겨 본 건설현장 인부의 제보로 이 곳을 집중 발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에서 18~1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상과 묘석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안구적출 소년 전자안구로 연습

지난해 악몽 닫고 새 눈 적응 훈련 / 간단한 한자·숫자 등은 구분

지난해 유괴된 뒤 안구 적출을 당해 중국인을 충격에 빠뜨렸던 궈빈(7)의 근황이 공개됐다.

산시성에 사는 궈빈은 지난해 8월 선전에서 의안 이식 수술 후 3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산시성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궈빈은 베이징에서 '전자 안구' 이식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브레인포트라는 기기의 도움으로 '보는' 훈련을 하고 있다.

브레인포트는 마이크로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선글라스에서 물체를 촬영해 신호를 센서로 보내는 장치다. 사용자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전극판을 입에 물고 혀를 통해 2D 화면을 대뇌로 전송해 간단한 사물을 볼 수 있다.

브레인포트 1단계 교육을 받은 궈빈은 기기의 도움을 받아 손으로 만지지 않고 공의 개수도 세고 30㎝ 높이의 '人', '口' 등 간단한 한자와 숫자, 화살표 방향 등을 구분해냈다.

의안을 이식한지 1년이 된 궈빈은 겉으로 보기에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 그는 여느 아이들보다 활달하고 장난기가 가득하다.

주치의인 린순자오는 "궈빈은 신체적, 심리적 회복 속도가 빠르다. 점차 나아지는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순자오는 이어 "기기가 효과가 있긴 하지만 궈빈이 아직 어려 집중력이 높은 편이 아니다"며 "오는 9월 정식으로 학교에 들어가면 다음 단계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궈빈은 다음 달 우한에 있는 시각장애인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 예정이다.

얼마전 선전을 찾은 궈빈은 이탈리아에서 브레인포트 사용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 리모씨에게 기기의 영상 크기와 밝기 등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몇 시간 만에 작동법에 익숙해진 궈빈은 "혀가 마비되는 것 같고 조금 아프긴 하지만 기분 좋다"고 말했다. 궈빈의 부모는 "아들이 '전자 안구'에 적응하는 모습이 놀랍다"며 "기기를 잘 사용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기대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Brazil

erde braço ue de tigre

"가서 먹이 줘 봐라" 실없는 아버지 말에 호랑이에 팔 물려

브라질에서 한 소년이 호랑이에 물려 팔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부 파라나주 카스카베우의 한 동물원에서 최근 발생한 사고는 소년이 호랑이 우리 앞에서 장난을 치던 중 발생했다. 동물원 측 CCTV에는 소년이 안전 펜스를 넘어 호랑이 우리로 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다. 바로 옆 우리의 사자에게 먹이를 준 소년은 호랑이 우리로 향했으며 우리 앞을 빠르게 뛰어다녀 호랑이는 약이 오른 듯 보인다.

사고 당시 소년과 함께 있던 아버지는 체포돼 증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진술을 한 두 곧 바로 풀려났다. 수사를 맡은 데니스 이리누 경관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식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 우리는 실제로 아이의 아버지가 자녀의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심층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원에는 여섯 명의 안전요원이 관람객들이 동물에 가까이 접근해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년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근무태만 또한 조사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동물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카스카베우 시 측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우리 앞을 뛰어다니게 시켰다"라는 증언을 입수했다고 밝혀 아이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철없는 행동을 했기에 일어난 황당한 사고임이 밝혀졌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2039.37 (+8.27)
코스닥 548.30 (+2.01)
금리 2.51 (+0.01)
환율 1030.50 (-5.50)

1인 가구 맞춤형 냉장고 삼성전자 모델이 11일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1인 가구 맞춤형 냉장고 '슬림스타일'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제품 용량은 336ℓ 출고가는 최관 원이다. /삼성전자 제공

올해의 브랜드 소비자 투표

'2014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선정하는 전국 소비자 투표가 11~17일 진행된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2014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지난 2003년 제정 이래 총 1416만4071건의 소비자 관심과 참여 속에 성장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어워드다.

이번 어워드의 투표는 2014년 한 해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은 혁신적인 브랜드와 제품을 대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후보로 선정된 브랜드 중 온·오프라인 전국 소비자 투표를 통해 '2014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브랜드 부문은 산업부문별 총 254개 부문에 대한 전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산업군은 ▲주거·생활 ▲전자제품 ▲서비스 ▲금융 ▲패션·뷰티 ▲쇼핑·비즈니스 ▲자동차 ▲레저 ▲교육 ▲의료 ▲시자게 등으로 최고 지수를 획득한 1위 브랜드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꼽는다.

제품 부문은 대한민국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영향력 있었던 제품이 대상이다. 소비자연구원이 직접 기초조사와 산업부문별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의 브랜드 대상 최우수 제품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재영기자 ljy1403@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무·편집인 김광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34~3
독자센터 (02)721-9811
2005년 1월 31일 등록(서울바00786) 저널등록(서)-가00096

신용카드가 문화에 빠지다

신한·현대·하나SK 등 소규모 전시회서 대형 콘서트까지

카드가 문화에 빠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소규모 전시부터 문화 공연 행사, 규칙한 대형 콘서트까지 문화와 결합한 마케팅 경쟁이 한창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기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고 신규 고객 유입까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복안이다.

그 방식도 다양하다.

먼저 신한카드는 오는 23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한여름밤 오픈 콘서트를 열리고 있다.

남산 N서울타워 광장에서 열리는 '신한카드 Code 9 콘서트'는 인디페스티벌 형식으로 장기하와 얼굴들, 10cm, 킹스턴루디스카 등의 밴드들이 하루 3팀씩 무대에 오른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남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코드나인 콘서트를 향후 전국투어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이를 통해 신한카드의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널리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LG트윈스와 손잡고 주말 홈경기를 '한여름의 크리스마스(Summer X-mas)' 콘셉트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화 마케팅으로 빠질 수 없는 곳은 단연 현대카드다. 초대형 음악 콘서트부터 건축, 미술 등 다양한 컬처프로젝트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 9~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현대카드 CITYBREAK 2014'를 개최했다. 이날 슈퍼콘서트에는 오지 오스본(Ozzy Osbourne)과 '마룬 파이브(Maroon 5)' 씨이 등 국내외 정상급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랐다.

현대카드는 또 오는 10월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과 손잡고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5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전시도 진행하고 있다.

볼거리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도 있다.

하나SK카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나SK카드'를 쓰며 문화 여행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선 오는 8월 16일까지 강원도 오크밸리 리조트에서는 포맨과 V.O.S, 달샤벳, 박완규 등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특별 콘서트가 매주 열린다.

아울러 8월 3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오르세미술관전 관람시 2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인 삼성카드 셀렉트의 24번째 공연으로 스윗소로우, 어반자카파와 함께 '휴가본 콘서트'를 진행한다.

오는 9월5일 오후 8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각종과 스트레스를 버리고 휴가분한 마음으로 음악을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편 문화에 사회공헌을 더한 새로운 문화 형태의 공연도 있다.

KB국민카드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는 지난달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노사(勞使) 공동 자선 공연을 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내가 로봇왕' 11일 경기도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에서 로봇 바이애슬론 종목 참가자들이 경기 전 로봇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시총 반토막

올들어 10대 그룹 절반 이상이 감소

올 들어 10대 그룹 중 절반 이상의 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의 시총 감소율이 가장 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시총 합산액은 지난 7일 종가 기준 727조20억원으로 지난해 말 733조2707억원보다 0.85%(약 6조2760억원) 감소했다.

10대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GS, 한진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10대 그룹의 비중도 지난해 말 56.18%에서 53.31%로 2.87%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에서 시총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의 시총은 지난해 말 23조8625억원에서 13조9625억원으로 41.54% 다 줄어들었다.

롯데(-16.11%), 한화(-10.23%), 삼성(-3.36%), GS(-3.22%), 포스코(-1.07%) 등 6개 그룹의 시총도 지난해 말보다 감소했다.

올 들어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역시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지난해 말 25만7000원에서 지난 7일 14만2000원으로 44.75% 하락했다.

반면 올 들어 시총이 늘어난 10대 그룹은 한진(23.96%), SK(10.42%), LG(7.82%), 현대자동차(4.06%) 등 4곳이었다.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하이스코였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한 현대하이스코의 주가는 지난해 말 3만7700원에서 지난 7일 9만200원으로 138.99% 급등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잘못 낸 세금 반환신청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한을 2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유주영기자 boa@

출근하는 이건호 국민은행장 KB금융 갈등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르면 14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금융은행 본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코본드’ 기대반 우려반

수익률 7% 눈길… 손실 가능성도 커

고위험 고수익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출시를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본금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코코본드는 수익률이 6~7%대로 높은 반면 신용도가 낮아 은행의 건전성 악화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이번 주 안으로 2000억원 규모의 30년물 코코본드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발행하는 첫 코코본드 사례다. 시장은 JB금융 코코본드의 금리를 6% 후반으로 예상한다.

우리은행도 국내 은행으로서 처음으로 지난 4월 코코본드를 발행했으나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에서는 JB금융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발행 관련 금융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규 고금리 상품에 목말랐던 증권사들은 JB금융의 코코본드 출시를 앞두고 판매 준비에 한창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리테일 부문에서 코코본드 판매를 준비 중"이라며 "판매 대상이 개인투자자로 폭이 넓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코본드의 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개인투자자 참여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코코본드는 일반 채권과 달리 파산하지 않아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발행한 국내 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채권액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처리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원금을 날릴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향후 코코본드 시장의 모습 형성에 결정적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의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다보니 개인투자자 참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코본드가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첫 판매를 시작한 영국이 오는 10월부터 개인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내 코코본드의 리스크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는 유럽보다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투자하기 전에 국내 개별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파악해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용어설명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BIS 바젤Ⅲ를 충족하기 위해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 증권 보유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BIS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영국에서 2009년 처음 발행됐으며 자본시장 경색으로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기 대출금리 5% 육박

대기업 비해 너무 높아

저금리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9년 연 5.65%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금리는 2010년 5.51%, 2012년 5.4%, 지난해 4.64%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연 4.4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대출 대상별로 나눠보면 그 추이는 확연히 나뉜다.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곳은 가계 부문이다. 금융위기 후 각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안정적인 가계대출 영업에 치중하면서 치열한 금리 경쟁을 벌인 결과 지난 2009년 연 5.73%에 달했던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6월 3.94%까지 떨어졌다. 반면 지난 2009년 신규 대출금리가 연 5.65%로 가계대출 금리(연 5.73%)보다 낮았던 중소기업은 올해 6월 대출금리가 4.72%로 하락폭이 0.93%포인트에 그쳤다. 이는 가계대출 금리 하락폭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민기자

9월 이통사 영업정지 쓰나미?

방통위, '불법 보조금' 제재 결정 앞둬… 팬택 타격 불가피

다음달 또다시 이동통신3사에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14일, 7일)가 다음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통위는 양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한은 결정했지만 부여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방통위는 통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또다시 부과할 경우 이동사 외에 휴대전화 제조사나 유통사(대리점·판매점)에 막대한 피해가 미칠 점을 고려해 시일 결정을 미뤘다.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도 걸림돌이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결정도 아번달 확정될 방침이다.

업계에선 결국 방통위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달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방통위는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말 영업정지 종료 이후 보조금 과잉 경쟁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놓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결의할 방침이다.

2기 방통위에 이어 3기 방통위에서도 보조금 과열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암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월 이통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만일 이번 전체회의에서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도 다음달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에 모든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통3사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추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쟁사와의 가입자 유지 싸움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기로에 서있는 팬택엔 뼈아픈 결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통사에 한대라도 더 많은 단말기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는 이통사에 단말기 선구매를 거부할 빌미만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5일간의 이통사 영업정지에 이어 9월 또다시 영업정지가 이뤄진다면 이통사뿐 아니라 휴대전화 제조사, 유통업계에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이순신 장군 기상 깃든 거북선 만들어요" 아이파크백화점이 광복절을 맞아 점을 제작된 거북선과 판옥선을 전시하고 목재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순신 장군 체험교실'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상의, '윈스톱 경영상담센터' 오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전화 한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윈스톱 경영상담센터'가 개설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서울시 25개 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윈스톱 경영상담 센터'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윈스톱 경영상담센터'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전문경영컨설턴트 등 150여 명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고민해결사로 나선다. 인사규직, 회계처리 등의 일상업무는 물론 특허, 해외진출, 법률, 노무관리 등의 복잡한 사안까지 중소기업 경영 전 분야에 걸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와 서울시 25개 구상공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전화상담 창구를 통합한 '윈스톱 콜센터(전화 1600-1572)'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전화 한통으로 즉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애로나 고민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윈스톱 콜센터로 전화하면 지역, 요일, 분야에 상관없이 업무시간 중 언제라도 즉각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윈스톱 경영상담은 전화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진다. 대한상의 홈페이지인 코참넷(http://www.korcham.net)의 윈스톱 경영상담 코너를 방문하면 24시간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도 세종대로 상공회의소회관과 25개 구상공회에 상담실은 설치·운영된다.

/김두탁기자 kmdt@

'차세대 반도체' 그래핀 우리 손으로

국내 연구진 상용화 해결

'차세대 반도체'로 불리는 그래핀(전기가 잘 통하고 휘어나 단성을 지닌 미래 신소재) 상용화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한참수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별도의 처리 없어도 그래핀을 원하는 기판에 전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술을 사용해 전사된 그래핀은 손상이 거의 없고 금속판도 재사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얇은 폴리머층을 이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금속판 위에 있는 그래핀에 열, 전기장, 기계적압력을 이용해 기판을 강하게 부착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핀과 기판의 접착력을 금속판과의 접착력보다 높게 만든 후 기계적으로 뜯어내는 단순한 방법으로 그래핀을 원하는 기판에 전사했다. 덕분에 그래핀이 손상되거나 불순물이 들어가는 단점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다.

연구팀은 "이 방법으로 PET, PDMS, 유리와 같은 다양한 기판에 직접 전사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그래핀 응용 제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2차원 나노소재의 전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기자 lonlee@

현대차, 오토캠핑 페스티벌

현대자동차는 현대차 출고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10월 12일까지 제10회 오토캠핑 페스티벌 '서킷-캠핑'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 오토캠핑 페스티벌'은 10회째를 맞는 현대차의 대표적인 고객초청 이벤트. 최근 자동차 레저문화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오토캠핑을 통해 고객들에게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현대차는 홈페이지 이벤트를 통해 총 200가족(1가족 4인 기준/장비 미 보유 고객 150가족, 장비 보유 고객 50가족)을 선정,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10월 25일부터 1박 2일 동안 참가 가족들에게 캠핑 용품과 야영장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캠핑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150가족에게는 4인 가족용 텐트, 코펠, 버너, 테이블 등 캠핑 장비 일체와 야영장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며, 캠핑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50가족에게는 야영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현대차의 이번 캠핑의 주제는 '서킷 캠핑'으로 100명의 참가자를 사전 선발해 레이싱 라이선스 교육과 취득 과정을 거쳐 서킷을 직접 주행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는 더욱 즐거운 캠핑을 위해 △서킷 사파리 버스(서킷 체험) △아마추어 레이싱 차량 동승 서킷 체험 △초청 가수 공연 △키즈 시네마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현대차 홈페이지의 이벤트 메뉴를 통해 10월 12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10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훈기자

'셀카봉' 9900원에 판매 롯데마트는 전국 50개 매장에서 최대 97cm까지 거리 조절이 가능한 셀카봉을 9900원에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마트 제공

'올 뉴 쏘렌토' 싼타페와 차이점은?

플랫폼부터 새로 설계 차지 키워 수요 차별화

기아차가 11일 공개한 올 뉴 쏘렌토가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개발 방식과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차체 사이즈가 소폭 변경되는 식이었으나 이번 올 뉴 쏘렌토는 기존 것을 활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 설계했다. 쏘렌토R은 현대 싼타페와 같은 2700mm의 휠베이스였으나 올 뉴 쏘렌토는 2780mm로 늘어났다. 현대 맥스크루즈의 2800mm보다 20mm가 짧은 사이즈다. 이는 맥스크루즈, 싼타페와 차별화를 통해 올 뉴 쏘렌토의 독보적인 위치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늘어난 휠베이스는 3열 시트의 거주성과 트렁크 공간에 주로 배정됐다.

차체 길이도 현대 맥스크루즈(4915mm)와 싼타페(4690mm)의 사이에 자리하는 4780mm로 정했다. 차체 높이는 맥스크루즈(1690mm)와 싼타페(1680mm)의 정확히 중간인 1685mm로 설계됐다.

현대·기아차가 이런 노선을 택한 이유는 두 회사 간의 제품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기아차 쏘렌토R은 2009년 서울모터쇼 공개 이후 높은 관심을 보으며 좋은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2012년 4월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DM) 공개 직후 판매가 감소했다. 신형 싼타페는 쏘렌토R과 휠베이스와 엔진 라인업이 같고 가격대도 비슷해 서로 경쟁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사례는 현대차의 쏘나타와 기아차 K5 등 여러 차종에서 볼 수 있다. 문제는 쏘렌토R의 경우 수요의 상당수를 싼타페에 뺏겼다는 데 있었다. 쏘나타와 K5처럼 두 차종이 동시에 잘 팔리면 바람직하지만 싼타페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기아차가 타격을 입는 결과가 된 것. 따라서 이번에는 맥스크루즈·싼타페와 겹치지 않도록 고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 뉴 쏘렌토의 가격대는 싼타페와 비교해 2.0 모델은 약간 낮은 가격에서 출발해 더 비싼 가격으로 포지셔닝 됐다(2765만~3350만원). 2.2 모델은 동일 트림에서 약간씩 낮은 가격(2925만~343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현대 맥스크루즈(3450만~3873만원)에 비해서 낮은 가격이다. 기존 쏘렌토R과 비교하면 기본 가격을 인하했으며 최고급형의 가격도 10만~55만원 정도 올라 인상 폭이 크지 않은 수준이다.

기아 올 뉴 쏘렌토는 이달 28일에 국내에 출시되며, 오는 10월 파리모터쇼를 통해 해외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정의훈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직장인 58% "휴가중 회사서 연락"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 연락 때문에 휴가를 망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440명을 대상으로 '휴가 때 회사에서 연락 온 경험'을 조사한 결과 57.8%가 '있다'고 답했다.

연락은 상사(72.2%)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다. '거래처(고객)'(14.9%), '동기'(6.6%), '후배'(6.4%) 순이었다.

연락을 확인한 경우는 97.8%에 달한 반면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연락을 받은 이유로는 '급한 일일 것 같아서'(56%, 복수응답)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40%)가 많았다. '당연한 일이라서'(22.1%),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21.5%),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21.2%), '습관이 돼서'(12.4%), '복귀 후 혼날 것 같아서'(12.3%) 등의 의견이 있었다.

회사에서 연락한 이유로는 '업무 파악 등에 대해 묻기 위해서'(69.9%,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33.7%), '업무처리를 시키기 위해서'(32.1%), '업무관련 변동사항을 공지하려고'(7%), '휴가 후 업무를 미리 지시하기 위해서'(5.9%) 등이 있었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휴가지에서 처리했다'(42.9%), '대리인에게 처리를 부탁했다'(30.6%) 순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포기하고 복귀했다'는 직장인도 15%에 달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직장인 92% "직장 내 소통 어려움"

각종 SNS와 사내 메신저가 넘쳐나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직장 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3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1%가 '소통이 어렵다'고 답했다.

직장에서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꼽혔다. 이어 '서로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서' '회사 이슈가 잘 공유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가 많아서' 등이 거론됐다.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상사와의 의견 충돌'이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에는 각각 '다른 팀과 협업할 때'와 '메일로 업무를 처리할 때'가 올랐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직장인이 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이어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순이었다.

그러나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동료에 대한 불신과 불이익 우려가 그 이유였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의견을 말해도 상사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사내 의사소통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든다"며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의견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업과 직원 모두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위례신도시 특화평면, '서비스' 아닌 '승부수'

입지경쟁에서 상품경쟁으로 판촉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신평면 출시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에서 평면특화 경쟁이 거세다. 입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던 작년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위례신도시는 4만4000여 가구 11만 명을 수용하는 강남권 마지막 대단위 택지지구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특성 때문에 향후 입지에 따라 단지의 가치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위례에서의 본격 분양이 시작된 작년까지는 건설사가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를 가리는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다 올 들어 입지보다 상품을 따지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서 건설사들이 상품경쟁에 열을 올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위례신도시 사랑으로 부영의 분양 참패였다.

이 아파트는 위례신도시 돌풍이 불었던 작년 12월 비교적 입지 선호도가 좋은 성남시에 공급됐음에도 역대 최저 경쟁률은 물론 초기 90%에도 이르지 못하는 계약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뒤떨어지는 설계가 지적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성남은 송파보다는 인기가 없지만 하남보다는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참패까지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80~90년대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평면과 인테리어 때문에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다 둘러보지도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후 부영주택은 3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모델하우스 내부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다. 또 아파트의 모든 실내 마감재를 계약자 요구대로 교체해 주기로 특단의 조치를 내린 이후 계약률이 상승, 현재는 저층 일부만 미계약분이 남아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안에서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주 뛰어난 게 아니라면 단지별 상품 경쟁력을 갖췄을 때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신평면 개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호반건설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도 평면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타입별로 파우더룸, 드레스룸, 팬트리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알파룸을 제공했으며, 35~40㎡까지 서비스면적을 제공했다. 또 전 세대 부부욕실에 욕조와 샤워부스를 모두 적용, 고급 호텔 분위기가 나도록 연출했다.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전용면적 95A타입 거실과 알파룸

앞서 7월 신안이 공급한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도 하남시라는 입지와 중견건설사 브랜드라는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특화된 평면 구조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 알파룸은 물론 베타룸까지 만들 수 있게 됐고, 전용면적 101㎡에는 위례 최초로 5베이 평면을 도입했다.

이외 9월 분양에 들어갈 GS건설의 '위례 자이' 역시 전체 가구의 50% 이상에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한 3면발코니 평면을 적용했다. 또 테라스하우스(26가구)와 펜트하우스(7가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n8020@metroseoul.co.kr

대림미술관서 '직원가족 초청행사' 대림그룹 직원가족 초청행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오규석 사장(오른쪽 4번째)과 직원 가족들이 대림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트로이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9월 아파트 분양 최대 물량 예고

오는 9월 전국에는 지난해 동월대비 153.4% 급증한 4만9275구가 신규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적으로 모두 4만9275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월별 분양 물량으로 올해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같은 달(1만9442가구)과 비교해도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최근 6년 동안 9월 분양물량으로도 가장 많은 양이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미아4구역·왕십리뉴타운3구역, 신길7구역 등 재개발 단지에서 약 4500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비롯해 모두 6584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경기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4518가구)보다 141.3% 증가한 1만903가구가 공급된다. 미사강변, 동탄2, 위례 등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안양과 구리 등에서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에서 전체 지방 물량의 23.4%인 746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대구국가산업단지반도유보라(813가구)' 등 3225가구의 분양계획이 잡혀 있고, 부산은 '대연롯데캐슬레전드' 3149가구, '서대신7구역푸르지오' 959가구 등 총 6031가구가 분양된다.

경남 양산 물금읍에서는 대방건설이 2134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분양 성적이 좋았던 천안 불당동에서는 호반건설이 '천안 불당3차 호반베르디움' 815가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 다음 달에는 서울 인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물량도 쏟아진다.

대림산업은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2차'를 9월 분양한다. 지난해 1차 때 공급하지 못한 2차 물량 31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84㎡ 225가구를 추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물량의 30%가량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데다가 소위 '강남 8학군' 지역에 자리 잡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뉴타운 3구역에서 SK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재개발하는 '왕십리센츠힐3차'의 일반분양도 9월 시작될 예정이다. 지하철2호선 상왕십리역과 가까운 이 아파트는 28개 동, 총 209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97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영등포구 신길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영등포에스티움' 총 1722가구 중 78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보라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안근에 신안산선과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김주리기자 kinu@

수도권 85㎡ 아파트, 지역별로 7억3000만원 차이

수도권에서 같은 전용면적 85㎡의 아파트 가격이 최대 7억3000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85㎡는 국민주택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가장 공급이 많이 이뤄지는 면적이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전용면적 85㎡ 아파트 총 116만7914가구의 평균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시·군·구별로 최대 7억3703만원의 격차를 나타냈다.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8억7233만원, 가장 낮은 곳은 인천 강화군으로 1억3530만원이었다.

서울에서 강남구 다음으로 매매가가 높은 곳은 서초구로 8억6639만원이었으며 ▲송파구 7억1725만원 ▲용산구 6억7872만원 ▲광진구 5억6894만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 3억3399만원 ▲금천구 3억3841만원 ▲중랑구 3억4694만원 ▲강북구 3억5259만원으로 파악돼 서울에서도 자치구별로 최대 5억383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7억1542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성남시 4억7990만원 ▲광명시 3억5711만원 ▲의왕시 3억5461만원 ▲안양시 3억5334만원 순이다. 과천은 소형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이라 전용면적 85㎡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래미안슈르, 래미안에코펠리스 2개 밖에 없어 평균값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연천군으로 1억6713만원이었다. 또 포천시 1억7573만원, 동두천시 1억7647만원, 여주시 1억8005만원 등이 낮은 편에 속했다. 전용면적 85㎡의 경기 내 시·군·구별 가격차는 최대 5억4829만원이다.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2억657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동구 2억6609만원 ▲연수구 2억5720만원 ▲중구 2억4354만원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 강화군(1억3530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구간 가격차는 크지 않았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같은 면적임에도 시·군·구별 매매가격 차가 크게 나타나는 데는 위치뿐 아니라 교통·교육·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단말기 유통법' 취지 결합상품에 묻히나

이통3사 보조금 우회 가능성 제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통신·방송의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가 많은 상황에서 기존 통신 부문에 투입되던 보조금이 인터넷 등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자회사없이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결합상품은 음식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세트메뉴와 동일한 개념이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으로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무선끼리 결합상품을 제외한 유무선 결합상품의 비율은 KT 33%, SK텔레콤 20%, LG유플러스 10% 수준"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통신사의 유무선 결합상품을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해 왔다. 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방송을 결합해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방송을 '덤'(값) 취급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알뜰폰(MVNO)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권역을 중심으로 사업하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기회가 열렸다. 이통3사의 통신망을 망구축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 이를 통해 기존 경쟁의 걸림돌로 인식된 결합상품에 맞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이 2012년 방송통신결합서비스를 바탕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헬로모바일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티브로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현재 알뜰폰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다. 현대HCN 역시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주력은 아니다"며 "하지만 통신사의 인터넷·전화·인터넷방송(IPTV) 유무선 결합 상품에 대한 대응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곧 시행될 단말기 유통법이 불필요한 보조금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조금을 탄생시키며 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통3사가 보조금 등 마케팅으로 1년에 지출하는 금액이 8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 돈이 결합상품이라는 이점과 통신사의 가입자수 수성이라는 동기와 어우러져 다른 방향으로 우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합 상품 가입자 수가 많은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막는다고 보조금이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다른 방면도 마련돼야 취지에 맞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과 달리 결합상품은 보조금을 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SK텔레콤은 상품 가격, 구성 등을 미래부에 인가를 받는 사업자고, 타 경쟁사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eh...@metroseoul.co.kr

꼼꼼IT리뷰 – 에이수스 '폰패드7 LTE'

30만원대에 전화도 되는 태블릿

스마트폰은 화면크기가 너무 작고 태블릿PC는 전화기능이 없어 불편하고…

에이수스의 '폰패드7 중덤에블루션(LTE)'은 이같은 고민을 하는 모티즌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7인치 디스플레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칩만 꽂으면 LTE로 연결해 바로 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과연 제대로 통화가 가능할까. 어색하긴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 와이파이를 통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음성 통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워낙 큰 화면 탓에 유선 이어셋이나 블루투스 이어셋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할 듯하다.

폰패드7 LTE의 가장 큰 장점은 젠UI다. 태블릿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최대한 간결하게 배치해 사용하기 매우 편하다. 알림센터를 통해 태블릿 설정도 어느 화면에서나 원클릭으로 가능하다. 메모리 부스트, 계산기, 와이파이, 즉석사진, GPS, 모바일 데이터, 비행기모드 등을 끄고 켜거나 세부 설정까지 터치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 특히 여러 색상을 사용한 아이콘들이 시원하고 역동적이다.

전면 위·아래 장착된 듀얼 스피커도 인상적이다. 에이수스의 소닉마스터(SonicMaster) 음장 기술을 통해 쨍쨍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자연이나 야외에서 가족·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듣는데 제격이다.

하지만 500만 화소에 불과한 카메라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전면 카메라는 120만 화소에 불과해 휴대전화 조작기로 들어간 듯한 착각마저 일으킨다.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다소 낮아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것도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30만원 대에 불과한 '착한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메국현기자 ...

아마존 "수수료 못올리면 방 빼!"

디즈니 최신 DVD 판매 중단

세계 최대 온라인 판매업체 아마존이 주요 콘텐츠 기업에 판매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응하지 않을 경우 판매 목록에서 아예 빼버리고 있다. 아마존의 미국판 '갑질'인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한국시간) 아마존이 월트디즈니가 만든 일부 영화 DVD의 예약 판매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판매가 막힌 제품은 '캡틴 아메리카'더 윈터 솔져' '말레피센트' 등 대부분 최신작이다.

주요 외신들은 "아마존이 신작의 조기 흥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예약 주문을 무기 삼아 디즈니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미국 출판사 '아셰트'와의 가격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자 책 배송 기간을 한달가량 늘리는가하면 할인 판매를 중단하고 예약 주문도 받지 않았다.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망을 조인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아마존이 아닌 공급업체를 지지하고 있다. 스티븐 킹, 존 그리샴 등 미국 유력 작가 909명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실은 광고를 통해 "우리의 생계를 담보로 출판사와 협상을 하지 말라"고 아마존에 요구했다.

/박성훈기자 ...

U+Shop에서 가입하면 선물 LG유플러스가 'U+Shop'에서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미니 제습기 등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31일까지 연다. /LG유플러스 제공

MS 'X박스 원' 9월 23일 한국 상륙

PS4와 같은 49만8000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신형 비디오게임기 'X박스 원'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등 13개국에 출시된 후 10개월여 만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달 23일 X박스 원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출시되는 X박스 원 공식 번들 패키지는 두 종류다.

기본 패키지에는 500GB 하드 드라이브,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내장 와이파이가 장착돼 있으며 1개의 X박스 원 무선 컨트롤러, HDMI 케이블, 채팅용 헤드셋, 신규 멤버를 위한 X박스 라이브 골드 멤버십 14일 무료 체험권 등이 포함돼 있다. EA스포츠의 '피파15'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상 소비자가는 49만8000원(VAT 포함)이다. 이는 경쟁제품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4(PS4)의 가격과 똑 같다.

키넥트 패키지는 기본 모델에 동작인식 센서인 키넥트와 '댄스 센트럴 스포트라이트'

(Dance Central Spotlight)'를 추가 보함하고 있다. 예상 소비자가는 59만8000원(VAT 포함)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연말까지 데드 라이징3(Dead Rising 3), 페이블 레전드(Fable Legends), 포르자 호라이즌 2(Forza Horizon 2), 포르자 모터스포츠 5(Forza Motorsport 5), 헤일로: 마스터 치프 콜렉션(Halo: The Master Chief Collection) 등 16개의 독점 타이틀을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메국현기자

지긋지긋한 관절과 인대 질환, 신경통증·디스크 질환 등

강남조이스병원은 오래 전부터 댄스 아이돌 가수들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은 치료해왔다. 수술하지 않고 쉽고 확실한 시술과 진화된 치료법으로 방송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이에 강남조이스병원은 최근 Mnet 화제의 프로그램인 '댄싱9 시즌2'의 닥터 병원으로 활동 중이다. 춤을 추다 부상을 입거나 허리나 목관절, 인대 등에 고질병이 있는 심사위원과 출연자들은 빠른 치료를 위해 강남조이스병원을 내원한다. 또 마지막 최종 결승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출연 댄서들은 강남조이스병원에서 빠른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기도 한다.

특히 블루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는 비보이 컴블러크루 출신의 인기댄서인 박군은 연습 중 다친 발목과 발가락 인대 손상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으나 강남조이스병원에서 신개념 인대 증식 주사인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와 도수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 몸을 회복했다. 또 레드팀에서 주목받는 인기 스트릿 댄서인 박 양도 연습 도중 발생한 급격한 요통으로 요추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해 급성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지만 강남조이스병원에서 유전자 신경 주사 치료 및 도수·운동치료로 통증이 많이 호전됐다.

스포츠 스타와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찾는 강남조이스병원은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료를 시행한다. 사진은 Mnet '댄싱9 시즌2'에서 출연자의 상담 중인 장면. /Mnet '댄싱9 시즌2' 캡처

신개념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와 도수 치료로 끝!

◆환자의 질환과 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 실시

강남조이스병원에서 시행하는 유전자 줄기세포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방법이다. 일반적인 인대파열뿐만 아니라 재발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그리고 신경통과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방법이다. 게다가 강남조이스병원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자가혈 줄기세포 인대 증식 주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남조이스병원은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한다.

관절 및 인대 질환은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실시하고 허리 또는 목 디스크 질환 환자일 경우에는 조기에는 신경 주사 치료를, 중기일 때는 고주파 디스크 의 치료를, 말기나 추간판이 터진 환자에게는 특수 내시경 고주파 치료술을 실시한다.

특히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와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체계적인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체계화했다.

아울러 강남조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디스크나 관절 질환으로 약화된 관절·근육·인대를 강화하면서 척추·관절을 안정시키는 운동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본원 외에 여의도역, 강서 화곡역, 홍대입구역 근처에 목·허리·관절 통증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척추측만증 등) 전문 치료병원을 협력 네트워크로 개설하고 3지점 상역과 디스크·관절치료센터 연골과 인대치료 재생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문의: 서울대점 (02)879-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강서점 (02)2598-22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왼쪽부터) 사조해표 '사조 안심닭가슴살', CJ제일제당 '행복한콩 모닝두부 오곡참깨', 매일유업 '매일 바이오 플레인 저지방'

'착한식품'으로 건강 + 다이어트~

고단백·저열량 식단으로 균형 잡힌 영양 보충

올해 여름 휴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름휴가 전 장기간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던 이들은 물론 평소 몸매 관리에 소홀했던 이들도 수영복을 입을 마지막 휴가철인 '디 데이(D-day)'를 앞두고 막판 다이어트에 분주하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단식 등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지만 이는 결코 권장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근육 손상과 영양 불균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출시된 제품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법을 알아본다.

◆아침·점심은 고단백 저열량 식단으로

날씬한 몸매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싶다면 활동량이 적은 저녁식사는 생략하고 아침과 점심 식사를 잘 챙겨먹는 것이 좋다. 이 때 고단백 저열량 식단이 도움이 된다.

닭가슴살은 이미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재료다. 사조해표는 최근 '사조 안심닭가슴살' 4종을 리뉴얼 출시했다. 이 제품은 30g당 30kcal에 불과해 식사를 겸해 탄탄한 몸매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두부는 순수 단백질 음식으로 칼로리가 낮은 반면 포만감을 줘 가벼운 한 끼로 제격이다. CJ제일제당의 '행복한콩 모닝두부 오곡참깨'는 모닝두부 플레인에 VIPS 오곡참깨 드레싱이 별도로 들어있다. 기타 첨가물 없이 저온공법으로 만들어 고소하며 71kcal에 불과한 고단백 저열량 제품이다.

◆간식과 식사 재료에 좋은 요거트

다이어트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거트에는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유산균이 1g당 1억 마리 이상 들어 있다. 특히 다이어트 때 부족해 질 수 있는 칼슘과 단백질 등이 풍부하고 변비과 장 기능 개선, 변비 예방 역할을 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는다.

매일유업의 '매일 바이오 플레인 저지방'은 기존 매일 바이오 플레인 오리지널보다 지방 함량을 60% 줄여 지방 걱정 없이 요거트를 즐길 수 있으며 칼슘 함유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저녁엔 영양간식으로 폭식 예방

저녁을 거르면 잠들기 전 공복감으로 자칫 폭식을 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오후 6~7시 이전에 간단한 간식을 챙겨 먹으면 공복감이 없어져 저녁을 거르고도 수월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다양한 견과류가 들어 있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뉴트리션바는 다이어트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오리온의 '닥터유 미니 에너지바'는 기존 제품의 4분의 1로 크기를 줄여 취식과 휴대가 간편하다. 개당 칼로리는 24.75kcal로 4개를 섭취해도 총 열량이 공기밥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야식으로 제격이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루팡치킨·빠리치킨?… 튀는 제품명

치킨·외식업계에 부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관심

최근 치킨 외식업계에서 스토리를 품은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면서 인기몰이 중이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스토리텔링이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는 '별코치·루팡치킨' 등 독특한 브랜드 이름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별코치'는 '별에서 온 코스 치킨'의 준말로 에피타이저, 메인디쉬, 디저트로 이어지는 코스 치킨 요리다.

이 업체는 또 프랑스 추리소설 작가인 모리스 르블랑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인 '루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루팡치킨'을 선보였다. 소설 속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홈즈의 맞수인 루팡처럼 서원한 맥주와 잘 어울리면서 맛있게 매운 맛의 도둑이라는 콘셉트를 담고 있다.

BBQ는 최근 빠리치킨과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제품 관련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가미한 TV-CF를 선보여 화제다. BBQ의 새 광고모델인 류승룡은 '빠리치킨편'에서 카사노바로 등장해 코믹하면서도 속시원한 빠리지앵을 연기했으며 '자메이카 통다리구이편'에서는 자메이카 해변을 배경으로 레게춤을 선보였다.

한편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과 풍경들도 또 다른 스토리텔링의 소재거리이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라틴 쉠머라는 콘셉트를 지닌 신메뉴 2종을 선보였다. 브라질의 맛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인 슈라스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브라질 피카나 슈라스코 스테이크'와 멕시코풍 꽃등심 스테이크인 '멕시칸 카바나로 립아이 스테이크' 등이다. /정영일기자

류승룡은 '빠리치킨편' TV-CF 장면 /BBQ 제공

속옷브랜드 '훈훈한' 남성 모델 눈길

비비안, 소지섭 이어 조안성 발탁… 라쉬반 김지석은 계약 연장

속옷 브랜드에서 활약중인 '훈훈한' 남성 모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들은 단순한 제품 홍보보다는 타브랜드와 차별화된 이미지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비안은 배우 조인성을 새로운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

비비안은 지난 2011년 여성 란제리 브랜드로서는 파격적으로 남성 모델 소지섭을 발탁한 바 있다.

비비안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남성 모델을 통해 제품이 주는 내용이 아닌 브랜드가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주는 브랜드 광고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여성을 돋보이게 하는 감각적인 스타일과 란제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편안함'의 두 가지 요소를 담은 브랜드 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세련된 패셔니스타의 면모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밝은 미소를 지닌 조인성의 이미지가 비비안의 브랜드 방향성과 잘 부합돼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리젬 속옷 브랜드 라쉬반은 배우 김지석을 모델로 기용 중이다.

라쉬반 측은 "지난해부터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김지석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 라쉬반이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져 올해 계약 연장을 했다"고 전했다.

라쉬반은 모델 김지석의 건강하고,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라쉬반은 천연 소재인 텐셀을 사용해 위생적이고 통기성이 뛰어나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공효진 만년필' '천정명 볼펜'…

드라마 속 스타일리시한 소품 인기

'공효진 만년필'에서 '천정명 볼펜'까지 최근 드라마 속 스타일리시한 소품들이 인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드라마에 등장하는 필기구 인테리어 조명 등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조인성·공효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 이들의 패션뿐 아니라 작은 아이템 하나까지 연일 화제다.

조인성 사무실과 라디오부스에서 볼 수 있는 스탠드는 라문의 아물레또 제품.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작품으로 독일 모던 피나코테크 미술관에 전시될 만큼 뛰어난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드라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품 중 하나는 독일 필기구 브랜드 라미의 '사파리'다. 사파리는 라미의 베스트셀러 라인으로 단순히 글을 쓰는 펜의 용도 외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컬러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OCN드라마 '리셋'에서는 모나미의 153볼펜의 신규 라인 '153ID'가 주요 매개체로 등장한다.

리셋은 천정명 주연의 필로와 느와르가 결합된 스릴러물로,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내는 한 검사의 이야기다. '153ID'는 극중 최면의 대가 천정명에 상대방의 자백을 받아낼 때 최면에 사용하는 펜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모나미는 이 드라마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숯이 타고 남은 재의 컬러를 표현한 '스모키' 색상을 새롭게 선보였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드라마 PPL(간접광고)는 주인공들의 패션이나 덩치가 큰 가구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독특한 디자인 소품들이 젊은층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되면서 필기구·인테리어 용품 등 제품 지원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바캉스용 샌들? 휴가 후에도 신는 방법은?

염분 빼고, 신발장도 '보송보송' 유지해야

여름 휴가 시즌도 어느덧 막바지다. 샌들이나 플립플랍 등 바캉스용 신발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여름 휴가 후 더럽혀진 신발을 조금만 관리하면 새 신처럼 일상에서도 신을 수 있다.

천연소재의 코르크 샌들은 염분에 치명적이다. 바닷가에서 신었다면 마른 수건으로 물기와 소금기를 제거한 후 물수건을 사용해 바닥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바닥의 찌든 때가 눈에 거슬리면 칫솔을 이용해 가죽용 샴푸를 부드럽게 칠해주면 된다. 직사광선에서 건조시킬 경우 소재가 변형될 우려가 있으니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추천한다.

활동성이 장점인 스포츠 샌들은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솔로 문질러 닦아준 뒤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면 된다. 신발을 비닐봉투에 넣어 냉동실에 반나절 두면 박테리아·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표백제는 소재를 상하게 하거나 변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세탁 후에는 햇볕 아래에 널어 완전히 건조하는 게 좋다.

가죽 샌들은 수분에 민감하다. 젖은 상태로 방치하면 가죽 특유의 부드러움이 사라지면서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가죽 클리너를 사용한 뒤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한다. 주의할 점은 빠른 건조를 위해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형태가 뒤틀려 모양이 훼손되기 쉽다는 것이다. 신발 안에 녹차 티백이나 커피 찌꺼기, 레몬 조각 등을 넣어두면 불쾌한 발 냄새를 없앨 수 있다.

젤리슈즈는 작용이 쉬운만큼 박테리아나 세균에 오염되기도 쉽다. 신품은 그때 그때 닦아서 없애주고 표면에 상처가 있는 경우 구둣솔을 이용해 자국을 메워주는 것으로 간단히 관리할 수 있다. 세탁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신발을 신은 채 샤워를 하는 것도 오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강강술래 "여름휴가 '독서'로 힐링하세요"

갈벗출판과 '북캉스' 이벤트 진행

독서를 겸비 휴가를 즐기는 '북캉스족'이 늘어남에 따라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일상에 쫓겨 책 한 권 읽기 힘든 고객들을 위한 도서증정 이벤트 '하루30분 스마트폰 끄기 캠페인'을 벌인다.

갈벗출판과 함께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갈벗 추천도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과 '자연이 떠나는 주말여행 코스북'을 증정한다.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은 연봉·투자스타일 나이별로 뻔한 월급을 특별하게 만드는 93가지 비법을 정리한 재테크 서적이다. '자연이 떠나는 주말여행 코스북'은 가족 친구 연인은 물론 혼자서도 대중교통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베스트&시크릿 여행 정보를 총 망라한 도서다.

한편 강강술래는 이달 20일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www.sulla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추석선물 예약 할인전'도 실시한다.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예약 판매기간 구매 시 10% 추가 할인혜택을 준다.

행사기간 한우불고기1호(1kg)는 4만5000원, 한우불고기2호(1.5kg) 6만3000원, 강강양념1호(16대) 8만1000원, 강강양념2호(24대)는 11만7000원에 판매한다. 또 강강신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는 8만1000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는 11만7000원, 한우왕갈비세트1호(3.2kg=냉동)는 16만2000원에 선보인다.

/정혜인기자 hjung1404@

열차타고 떠나는 용유바다 여행!

말복과 입추를 지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는 기세지만 광복절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아직까지 휴가를 가지 않은 사람들 역시 이번 연휴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 생각에 바쁘기만 하다. 이에 수도권에서 가까워 고생 없이 가볍게 다녀오면서 휴가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용유바다를 소개한다.

◆가깝고 볼거리 많은 용유바다!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영종도와 한 섬이 된 용유지역에는 을왕리, 무의도 등 서해안 최고의 바다여행지가 몰려있다.

특히 용유바다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역으로 이동한 후 인천공항에서 연계 버스를 타면 10~20분 안에 도착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더욱이 코레일공항철도는 주말과 공휴일에 용유바닷가까지 연장 운행하는 서해바다열차를 운행 중이다.

열차나 버스를 타고 용유임시역에서 내리면 매랑도, 사렴도 등 무인도가 멋지게 펼쳐져 있으며 거잠포와 갯벌체험장으로 유명한 마시란해변이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또 그 앞으로는 섬여행지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무의도와 소무의도, 그리고 실미도가 위치해 있다.

아울러 인근에는 아담한 선녀바위해변,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붐비는 을왕리해변, 낙조가 아름다운 왕산해변이 있고 명사십리로 불릴 정도로 긴 해변을 자랑하는 마시란해변에서는 해변 트래킹도 즐길 수 있다.

인천공항 한국문화의 거리 내 디지털체험관(왼쪽)과 무의도 호룡곡산에서 바라본 소무의도 전경. /코레일공항철도 제공

공항철도 이용하면 색다른 재미 만끽

◆색다른 추억을 만드는 인천공항

용유바다를 가는 길목에 있는 인천공항에서의 재미도 빠뜨릴 수 없다. 사실 인천공항은 이제 더 이상 해외에 나갈 때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다.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 등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먼저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는 매일 3번의 공연이 열리고 밀레니엄홀 좌우로는 휴식을 위한 아담한 실내정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또 4층 한국문화의 거리는 조선 대식 건물과 기와를 얹은 전통한옥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으로 현란한 인터미디어 디지털체험관, 국악 공연, 왕가의 행차 등의 풍성한 볼거리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특히 정자에 앉아 여유롭게 계류장을 바라보며 각국의 항공기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은 한류스타 캐릭터숍과 선물가게를 비롯해 각국의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도 있으며 영화관과 사계절 아이스링크장, 야생조화원 등은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아울러 밤이면 화려한 야경으로 갈아입는 현란한 공항의 밤은 올 여름밤 최고의 선물이다.

◆직통열차 타면 오붓한 여행 가능

열차를 이용해 용유바다 여행을 떠날 경우에는 인천공항을 먼저 구경한 뒤 연계 버스로 용유바다로 가는 것이 좋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서해바다열차를 타고 용유바다 여행을 즐긴 다음 귀가길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일정을 잡으면 된다.

또 용유임시역에서 마시란해변은 5분 거리이며 무의도행 배가 출발하는 잠진도선착장까지는 도보 20분이다. 임시역에서 302번이나 306번 버스를 타면 을왕리, 선녀바위해변 등에 10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다.

더욱이 공항철도는 역마다 모두 정차하는 일반열차와 서울역~인천공항역을 논스톱 운행하는 직통열차로 운행되며 직통열차는 운임이 비싼 대신 개인좌석제로 운영돼 오붓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만약 4인 이상이 이용할 경우에는 1인 8000원인 운임이 6000원으로 할인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일과 여가 조화로운 기업' 선정

문체부, 지원사업 대상 선정 때 가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전반에 여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고자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장인들이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나아가 여가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10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여가지원제도(여가시간, 공간과 비용·프로그램 등) ▲운영기반(경영진의 관심과 여가 운영시스템, 지원예산 등) ▲임직원의 만족도 등이다.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 표창 등 정부 차원의 포상과 홍보, 여가 컨설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문체부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김학철기자

잇츠스킨, '레드닷' 화장품 부문 최다 수상

제품 효능을 그래픽으로 표현

잇츠스킨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8개 출품작 모두 상을 받으며 화장품 부문 최다 수상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출품작은 ▲클리니컬 솔루션 라인 ▲베이직 스킨케어 라인 ▲바질씨드 프레쉬 크림 ▲바질씨드 엔리치 크림 등으로 고객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인 그래픽 디자인이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잇츠스킨 관계자는 "'클리니컬 스킨 솔루션'이라는 슬로건으로 고객의 피부 고민의 솔루션이 되는 제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라인으로 선보이고 있는 잇츠스킨의 브랜드 콘셉트와 제품의 성분과 효능 타깃을 딱딱한 글자가 아닌 그래픽으로 시각화해 표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정혜인기자

"추석 차례상, 비싸도 국산 식재료 쓸 것"

일부는 대체 가능한 품목 활용

한가위를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오픈마켓 이용자들이 올 추석 준비에 가격이 높아도 국산 식재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옥션이 1일부터 7일까지 회원 14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소비 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싸도 되도록 국산 음식재료를 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2%에 달했다.

'대체 수입식품으로 대부분 준비하겠다'는 의견은 14.5%에 그쳤다. 비용 부담 때문에 '제수음식 종류나 양을 줄일 예정'이라는 응답자는 37%를 차지한 반면 '양을 줄일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2%이었다. 제수음식은 비싸더라도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성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많으면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해 음식 종류를 줄이려는 것이다.

또 이른 추석으로 사과·배 등의 제철과일 물량이 줄고 육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체품목을 찾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수상에 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체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수박·참외 등 국산 과일(48%)'이 가장 높았다. 평년보다 이른 추석 탓에 제철에 나는 전통적인 제수용 과일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름 과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한우 대신 수입 쇠고기(38.3%)', '햇밤 대신 묵은 밤(7.1%)', '체리·바나나 등 수입과일(6.6%)' 순으로 나타났다.

차례 음식 준비로 예상되는 지출비용은 '20만원 내외(31.2%)'가 가장 많았으며 '30만원 내외(22.3%)', '15만원 내외(16%)', '25만원 내외(12%)'가 뒤를 이었다.

유통업계, '다다익선' 마케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고객들을 위해 유통업계가 구매가 많아질수록 혜택도 늘어나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아큐브는 9월 20일까지 '아큐브와 함께하는 100일의 FUN'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구매 횟수에 따라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제품 구매 후 일련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참여 가능하다. 첫 번째 구매 시에는 빕스·CGV·투썸플레이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쿠폰이, 두 번째에는 CGV 영화 예매권, 세 번째에는 추첨을 통해 3000명에게 UV스프레이·산소워터·비타민워터로 구성된 트래블세트 또는 손앤박 메이크업 키트가 랜덤으로 제공된다.

올림푸스한국은 자회사 비젼비엔아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진관 미오디오에서 9월 21일까지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행사를 펼친다.

아리따움은 오는 24일까지 썸머 뷰티 트립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 1만원당 스티커를 한 장씩 받을 수 있다.

/정혜인기자

"음악 빼면 자유로운 영혼이죠"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 톱3에 올라 로커로 정식 데뷔한 정준영(25). 자신의 색깔을 담은 앨범으로 음악성을 인정받았고 '1박2일'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여심을 흔들며 '대세남'으로 급부상했다. 최근에는 새 앨범 '틴에이저' 발매와 영화 '오늘의 연애' 캐스팅까지 무한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지하다가도 가끔 돌발 행동을 보이며 대중을 당황케하는 그의 매력을 분석해 봤다.

자작곡 담은 정규앨범 준비중 예능서 솔직 엉뚱 매력 '마초남'

◆ 가수 정준영 '고집쟁이'

정준영은 이번에도 록을 고집했다. 국내에서 록 장르는 조금 무겁고 대중성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록을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바이올린을 계기로 음악가를 꿈꾸었으며 실제로 한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6세에 마릴린 맨슨에 빠졌다. "멋있고 재미있어서" 베이스 기타를 쳤다. 18세 땐 커트 코베인이 멋있다고 생각하며 '가수가 되겠다' 결심했다. 19세에는 로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인디밴드를 결성했다. 그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음악을 제외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해야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음악적인 장르(록) 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미니앨범 '이별 10분 전' 이후 8개월여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틴에이저'로 돌아 온 그는 전곡의 작사 및 작곡은 물론 직접 프로듀싱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음악적인 느낌도 무거워졌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지만 앨범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어요. 만들어 둔 자작곡들도 있었기 때문에 틈틈이 작업을 해서 힘들지는 않았죠. 곡의 영감은 차에서 이동할 때 여행하면서 얻기도 했어요. 학창시절 이야기를 담았는데 작업 끝내고 들어보니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의 고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올가을 발매를 목표로 정규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평소 작업한 자작곡으로 구성한 정규 앨범을 10월(?) 발매할 계획이다"며 "12월에는 규모가 작은 소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 예능인 정준영 '엉뚱함'

정준영은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예능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KBS2 '해피선데이-1박2일'과 엠넷 '엠카운트다운' MC, 최근 MBC 표준FM 라디오 '정준영의 심심타파'의 정식 DJ로 활동중이다.

"요즘은 하루 3~4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예능을 통해 얻는 보람과 즐거움으로 행복해요. 스케줄이 많긴 하지만 예능은 음악에서 느끼는 것과 다른 예능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어요. 특히 리얼리티를 좋아하고 대중에게 친숙하게 어필할 수 있는 '1박2일'은 저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죠."

최근에는 tvN 'SNL 코리아'에 출연해 박주영을 풍자한 콩트를 완벽하게 표현해 연기에도 합격점을 받았다. 덕분에 최근 영화 드라마 섭외까지 들어오고 있다.

그는 "연기 하는 순간 민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나는 갈대같은 남자라서 음악적인 것을 제외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엉뚱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평소 요리를 즐기는 정준영은 블로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해 온 블로거다. 자신이 직접 한 요리는 물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애완견, 좋아하는 프라모델을 게재하며 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처음엔 심심해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올렸는데 호응이 좋았죠. 블로그에는 시간이 지나도 간직할 수 있는 추억들이 남아 있어서 좋아요. 아직 파워블로거는 아니지만 방문자수는 꽤 많아요. 요리 전문채널에 출연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웃음)"

/김현정기자 yeah@metroseoul.co.kr

음악·입담·연기까지 대세남

정준영

엑소와 90년대 가요가 만났다

엠넷 '엑소 902014' 서 대중음악 황금기 재조명

엑소가 1990년대 한국 대중가요를 재해석한다.

11일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엠넷 'K-팝 타임슬립 엑소 90:2014'(이하 '엑소 902014') 제작발표회에는 엑소, 방송인 전현무, 정유진 PD가 참석했다.

'엑소 902014'는 엑소가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였던 90년대 명곡들을 2014년 판으로 재해석, 조명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엑소는 매 회 90년대 가요를 가지고 2014년 판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90년대의 향수와 엑소의 새로운 매력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멤버 전원이 90년대에 태어난 엑소가 당시 가요와 대중문화를 조명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MC 전현무는 "제가 97학번이다"며 "90년대를 지냈던 사람이고 또 지금은 샤이니, 엑소를 좋아한다. 두 세대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고 있다. 디지 엑소의 매니저가 된 심정으로 여러 조언을 해주며 함께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인 멤버의 경우 90년대 한국 가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 같다는 우려에 루한은 "어렸을 때 H.O.T의 광팬이었다"며 "H.O.T 선배들의 모든 노래를 거의 다 안다. H.O.T는 물론 다른 선배님들에 대해서도 아는 게 많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수호는 "멤버들과 함께 90년대로 돌아가 H.O.T, 신화, god 등 선배들과 함께 활동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찬은 "아버지가 김건모 선배의 팬"이라며 "김건모 선배의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찍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카이는 "조성모 선배의 '아시나요' 처럼 드라마 타이즈 기법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현무는 "엑소의 군무는 많이 봤으니 신승훈 씨 같은 분들의 곡들은 재해석해도 좋겠다"며 "혹시 엑소 멤버들은 잉크나 펌, 태사자, 모르는 룰라 미스 이글파이브 같은 그룹은 알고 있느냐. 수호와 디오가 짝을 지어 공연을 해도 재밌겠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엑소 902014'는 2014년 판 뮤직비디오는 물론 선배 가수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당시 팬덤 문화 등 90년대의 다양한 대중문화도 다룰 예정이다.

백현은 "H.O.T 선배들의 DNA 목걸이가 무척 신기했다"며 "음성사서함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현무는 "과거 팬덤은 라이벌 그룹 포스터에 눈알을 칼로 판다든지 죽은 고양이 등을 보내기도 했다"며 "요즘 팬덤 문화가 한층 성숙됐음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해 90년대와 2014년을 아우르는 MC다운 모습을 보였다. 찬열은 "선배들에게 90년대와 2014년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엑소 902014'는 15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김학선기자 sneak@metroseoul.co.kr

11일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엠넷 'K-팝 타임슬립 엑소 90:2014'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그룹 엑소와 MC 전현무가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황진이밴드·지고 '얼음꽃' 발표

국악연주·보컬 버전으로 각각 출시

프로젝트그룹 지고(ZGo)(사진 오른쪽)와 퓨전국악 황진이밴드(왼쪽)가 싱글 '얼음꽃'을 발표했다.

'얼음꽃'은 그룹 하데스바이올렛의 키보디스트인 진지니가 작사·작곡한 곡으로 국악정서가 짙은 발라드다. 전지니는 지고의 보컬버전과 황진이밴드의 연주버전으로 각각 곡 작업을 했다. 전지니는 보컬리스트 박고은과 함께 프로젝트 그룹 지고로도 활동 중이다.

지고의 '얼음꽃'은 보컬의 청아한 목소리와 서정적인 가사가 매력적이다. 황진이밴드가 연주한 '얼음꽃'은 구슬프지만 힘 있는 국악기가 조화를 이뤘다.

이들은 앨범 아트워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고는 미술을 전공한 전지니가 유화작업으로 재킷을 꾸몄다. 황진이밴드는 주지오 작가가 참여해 얼음꽃의 이미지를 개성 있게 형상화해 앨범에 담았다.

'얼음꽃'은 황진이밴드의 1집에도 실릴 예정이다. 전지니는 하데스바이올렛 1집을 준비 중이다.

2005년 결성한 황진이밴드는 국내 최초로 퓨전 국악 살롱을 개척한 팀이다. 정명혜(가야금) 도유화(대금) 소현희(가야금) 허윤주(보컬) 임미선(바이올린)으로 구성됐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각국에서 공연하며 국악을 알리는 한국 문화 홍보사절단으로 활동해 왔다.

G20 정상회의 기념공연,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축하공연, 미스춘향선발대회 축하공연을 비롯해 MBN 개그프로그램 '개그공화국' 메인 음악팀으로 2년간 고정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광복절인 15일에는 울릉도에서 특별 공연을 연다. /유순호기자

'9월 컴백' 2PM 10월 월드투어

그룹 2PM이 10월 월드투어에 나선다.

이들은 10월 3~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공연을 시작으로 태국,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각국에서 2PM 월드투어를 개최한다. 다음 달 새 앨범 출시 계획을 밝힌 2PM은 국내 활동 직후 월드투어로 해외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2PM은 이번 공연에서 다음달 공개할 정규 4집 수록곡은 물론 히트곡과 멤버들의 솔로 앨범에 실린 곡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2PM은 다음달 멤버 준케이의 자작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앨범을 한국과 일본에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유순호기자

'YG 신예' 위너 오늘 데뷔

더블 타이틀곡 티저 이미지 이색 매력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신인 그룹 위너가 데뷔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공허해'와 '컬러링'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12일 음원을 공개하고 14일 오프라인에 앨범을 출시하는 위너는 이에 앞서 11일 YG 공식 블로그에 두 곡의 티저 이미지를 선보였다. '공허해' 이미지에는 수트 차림에 클래식카 앞에 기대 서 있는 다섯 멤버들을 담았다. '컬러링'에서는 모노톤의 캐주얼한 차림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 계단에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위너는 데뷔앨범에 수록되는 총 10곡의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나타냈다. 15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YG패밀리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공식 무대를 마련한다.

그 동안 빅뱅의 일본 6대 돔 투어, 2NE1의 월드투어 등 선배 가수들의 콘서트 게스트로 무대에 서 왔지만 자신들의 앨범을 발표하고 무대를 꾸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너는 선배들과 함께 당당히 무대에 올라 새로운 YG패밀리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는 빅뱅·싸이·2NE1·에픽하이·악동뮤지션·이하이 등이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o@

전 남편의 결혼식,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졌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my secret hotel

킬.링.로.맨.스

연출 홍종찬 극본 김도현 | 김예리

8월18일 (월) 밤11시 tvN 첫방송

예능 부활 이끄는 '신의 한 수' 3인

예능 프로그램 부활을 이끈 신의 한 수 3인이 있다. 전문 예능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가수 헨리와 배우 송일국·정웅인은 출연과 동시에 주목 받으며 시청률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정웅인과 헨리로 시청률 반등에 성공했다. '아빠! 어디가?'와 '진짜 사나이'는 반복되는 이야기 전개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빠! 어디가? 시즌2'는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출연진의 부조화도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관찰 육아 예능 열풍을 일으킨 이 방송은 정웅인·정세윤 부녀의 합류로 명예를 회복했다. 출연 어린이들은 정세윤양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비슷한 또래가 합류하면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 윤후는 오빠답게 정세윤을 리드하고 김민율은 성빈과 정세윤을 두고 갈등한다. 또 임찬형·안리환은 정세윤을 배려하며 좋은 친구가 되고 있다.

'진짜 사나이'는 헨리가 첫 등장하면서부터 시청률이 올랐다. 2월 16일 시청률 16.2%(닐슨코리아·전국 기준)를 기록했고 이는 전 회보다 2.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동시간대 SBS '런닝맨' KBS2 '1박2일'을 제치고 1위로 상승했다. 캐나다 국적

헨리·정웅인·송일국, 매회 화제…시청률 견인

의 중국계인 그는 한국 군대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해맑은 모습으로 조교와 부대원의 귀여움을 독차지한다.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난감한 상황에선 솔직하고 엉뚱하게 감정 표현을 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송일국과 대한·민국·만세 세 쌍둥이도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를 위기에서 구했다. 방송은 관심 꼴찌와 김정태의 선거 유세 논란, 장현성 부자의 하차로 시청자의 외면을 받고 있었다. '아빠! 어디가?' 정웅인 부녀의 합류와 시기가 겹치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내어 주기도 했다.

반전의 계기는 송일국 부자의 출연. 대한·민국·민세라는 독특한 이름과 송일국의 반전 매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 쌍둥이는 같은 상황에도 각기 다른 세 가지 반응을 보여 '슈퍼맨'을 떠들썩하게 한다. 철인 3종 경기 매니아 송일국은 "육아가 더 힘들다"며 방송 내내 땀에 젖어 있다.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을 형성한다는 평가다.

/정효진기자 jeonh1@metroseoul.co.kr

강예원 두 번째 유화 개인전

배우 강예원이 11일부터 한 달간 유화 개인전 '아이 인 마이셀프(I IN MYSELF)'를 연다. 올해 3월 첫 번째 개인전 '사람 그리고 바라보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개인 전시는 IFC 아트 프로젝트와 함께 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IFC몰을 찾는 직장인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하는 취지며 강예원의 유화 작품이 이에 어울린다는 평가다.

그는 작품에 자신의 내면, 배우 강예원과 인간 강예원이 느끼는 감정을 담아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외로움, 갈등, 불안도 표현하려 했다는 후문이다.

'아이 인 마이셀프' 아트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최요한 감독은 "강예원의 열정과 표현주의 형식의 작품 세계는 작가로서 활동하는데 큰 우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진기자

그룹 샤이니의 태민이 데뷔 6년 만에 처음으로 솔로 활동에 나선다.

태민은 18일 첫 미니앨범 '에이스'를 발표한다. 태민은 이번 앨범을 통해 그동안 샤이니로 보여준 음악과 퍼포먼스와 다른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이 담긴 특별한 무대를 공개해 파격적으로 변신한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민은 차별화된 음악 색깔과 무대로 전 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샤이니의 멤버다. 매력적인 보컬과 가창력, 뛰어난 퍼포먼스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태민은 12일 공식 홈페이지 및 SM타운 유튜브 채널에 일본 촬사 티저 영상을 발표한다.

/유순호기자

백지영 첫 미국 단독 콘서트

LA·뉴욕서 두 차례 공연

가수 백지영이 미국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백지영은 오는 28일 캘리포니아 LA 클럽 노키아 공연을 시작으로 30일 뉴욕 링컨 센터 에버리 피셔홀에서 현지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 백지영은 '그 여자' '잊지 말아요' 등의 여러 OST를 포함한 히트 발라드곡은 물론 '대시' '내 귀에 캔디' '굿 보이' 등 에너지 넘치는 댄스곡도 선보일 계획이다.

백지영의 소속사 WS엔터테인먼트는 "백지영이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공연인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현지 교포들과 현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주최사인 뉴욕 KRB 라디오코리아는 "이번 공연을 통해 미국에서도 '발라드 퀸'의 저력을 과시하며 현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백지영은 미국 단독콘서트에 이어 다음 달 20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2014 백지영 쇼' 투어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김지연 기자 langk m4

탈출구 없는 현실의 무게감 전달

인물·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긴장감 더해

film review

/[illegible]

■ 해무

1998년 전라남도 여수. IMF 경제 위기는 이 작은 어촌 마을이 활기까지 빼앗아 가버렸다. 여수 앞바다를 주름잡던 전진호도 이제는 만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폐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선장 철주(김윤석)는 자식과도 같은 선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큰돈이라도 남겨주기 위해 조선족의 밀항을 돕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감행한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해무'(감독 심성보)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성에 대해 파헤치는 영화다. 극단 연우무대의 동명 연극이 원작으로 지난 2001년 발생한 제7호 태창호 사건이 모티브가 됐다. 김윤석, 문성근, 이희준, 김상호, 유승목 등 연극 무대 출신 배우들과 JYJ 멤버 박유천, 그리고 충무로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한예리 등이 한 배에 탄 사람들로 호흡을 맞췄다.

영화는 '살인의 추억'에서 감독과 각본가로 만났던 봉준호-심성보 콤비가 기획·제작과 감독으로 다시 만나 화제가 됐다. '해무'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살인의 추억'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통해 1980년대의 한국 사회를 조망했던 심성보 감독은 '해무'에서는 199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단면을 담아낸다. IMF 경제 위기로 인해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테마다. 돈과 욕망, 사랑 등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만을 생각하며 오직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긴장감 있게 펼쳐진다.

선원들과 밀항자들의 갈등에서는 '설국열차'가 다룬 계급 차이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해무'는 사회 시스템에 지닌 부조리함보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내면에 관심을 보인다. 오해에서 비롯되는 예상 밖의 사건들, 그리고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인물들의 행동은 관객들로 하여금 '살아남는다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고민하게 만든다.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배처럼 영화는 탈출구가 없는 먹먹함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그 짙은 무게감을 견디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해무'는 화려한 볼거리 없이 인물과 이야기만으로 영화를 탄탄하게 이끌어가는 연출력으로 눈여겨볼 작품이다. 웃음과 감동, 카타르시스를 담아낸 여름 대작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현실의 무게감을 이야기하는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궁금하다. 청소년 관람불가. 13일 개봉.

신예 박주희 '마녀'로 눈도장

미장센영화제 연기상 받은 차세대 연기파

신인 배우 박주희가 다음달 11일 개봉하는 영화 '마녀'(감독 유영선)에서 소름 끼치는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마녀'는 미스터리한 신입사원을 둘러싼 무서운 소문과 그 속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 박주희는 주인공인 세영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박주희는 올해 제13회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비행소녀'와 '만일의 세계'로 심사위원 특별상 연기부문을 수상한 차세대 연기파 배우다. 옴니버스 영화 '어떤 시선'에서 함께 작업한 민용근 감독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마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미지를 보여줘 신선했다. 개성 강하고 폭넓은 배우"라고 소개했다.

'마녀'에서는 청초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부터 반항기 어린 청춘의 얼굴까지 다양한 연기를 선보였다.

유영선 감독은 "'박쥐'의 김옥빈,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의 서영희만큼 집중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신뢰를 드러냈다. /유하늘기자

'엑스터시 나이트' 14일 개봉

에로틱 스릴러 영화 '엑스터시 나이트'가 올 여름 극장가를 찾는다.

'엑스터시 나이트'는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외부와 차단된 외딴 집에 모여 초감각적인 지각 실험을 하며 겪는 환락과 파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심리학 실험의 한 방법으로 쓰이는 간즈펠드 실험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했다.

이번 작품에는 할리우드에서 주목 받고 있는 신예 배우들이 출연한다.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의 딸로 잘 알려진 루머 윌리스는 파티를 좋아하는 섹시한 여대생 역을 맡아 과감한 노출 연기를 감행했다. 딥백스의 주인공이자 '제2의 모니카 벨루치'로 불리는 벨라리 골도 관능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영화는 현실과 환각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담아냈다. '엑스터시 나이트'는 오는 14일 개봉 예정이다. /유하늘기자

할리우드 명감독 신작 10월에

데이빗 핀처 '나를 찾아줘'·로버트 저메키스 '워크' 개봉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데이빗 핀처 감독과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신작들이 오는 10월 국내 극장가를 찾는다.

데이빗 핀처 감독의 신작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 '나를 찾아줘'다. 결혼 5주년을 앞두고 사라진 아내 에이미(로자먼드 파이크)를 찾아나선 남편 닉(벤 애플렉)이 전 국민이 의심하는 용의자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작품이다.

데이빗 핀처 감독은 대표작 '세븐'을 비롯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소셜 네트워크'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까지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들로 흥행을 기록한 바 있다. 또 한 편의 명작 심리 스릴러를 기대하게 만든다. 벤 애플렉과의 만남도 관전 포인트다.

'포레스트 검프' '캐스트 어웨이' 등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신작은 조셉 고든 레빗과 함께한 '워크'다. 1974년 8월 7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사이를 횡단했던 필리페 페팃의 실화를 영화화했다.

이번 작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세계무역센터의 두 빌딩을 생생하게 재현해내 관심을 모은다. 3D와 아이맥스로 촬영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하늘기자

'대형 신인' 이미림, 박인비 꺾었다

연장접전 승리…LPGA 데뷔 첫해 우승 감격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이 한국 여자골프 간판스타 박인비(26·KB금융그룹)를 연장전에서 누르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림은 11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골프장(파71·6414야드)에서 열린 마이어 LPGA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로 박인비와 동타를 기록한 뒤 연장 승부 끝에 역전극을 완성했다.

3라운드 단독 선두인 박인비에 한 타 뒤진 12언더파 단독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이미림은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를 기록한 박인비와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이미림은 연장 두 번째 홀에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LPGA 첫 우승이자 신설 대회인 마이어 LPGA 클래식의 초대 챔피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미림은 4라운드 초반 1위 박인비와 1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타수를 줄이는 사이 2번홀(파3)에서 보기를 범하며 흔들렸다. 그러다 두 베테랑 사이에서 경기를 풀어가면서도 오히려 흐름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며 신인답지 않은 경기운영 능력을 보였다. 이미림은 5~11번홀에서 버디 3개를 추가해 박인비를 다시 한 타 차로 추격했다.

박인비가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는 사이 이미림은 15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박인비·페테르센과 공동 선두에 올랐다. 페테르센은 16번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우승 경쟁은 이미림과 박인비의 대결로 좁혀졌다.

18번홀(파4)에서 열린 첫 번째 연장에서 두 선수가 나란히 파를 기록한 데 이어 연장 두 번째 홀인 17번홀(파4)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미림은 두 번째 샷을 홀에 바짝 붙인 뒤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박인비를 따돌리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림은 2010년 KLPGA에 출전해 통산 3승을 거뒀다. 지난해 퀄리파잉스쿨을 통해 올 시즌 LPGA 투어 출전권을 딴 그는 데뷔 첫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미림은 3월 열린 JTBC 파운더스컵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하며 LPGA 태극낭자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페테르센은 이미림·박인비에 이어 3위(13언더파 271타)에 올랐다. 양희영(25)은 공동 5위(9언더파 275타), 세계랭킹 2위인 리디아 고(17)는 공동 12위(5언더파 279타)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미림이 연장전에서 우승을 확정한 순간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박인비의 표정이 대조적이다. /AP

이선주의 베이스볼 카페

커쇼의 재털이, 류현진의 힘

얼마 전 김기태 전 LG 감독이 미국에서 돌아왔다. 갑작스럽게 LG 지휘봉을 놓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4개월 동안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다저스타디움을 찾아 메이저리그 경기도 보았고 다저스 투수 류현진을 만나 식사도 함께 했다고 한다.

그는 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26)와 류현진(27)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커쇼는 올해도 무시무시한 볼을 던지면서 사이영상과 MVP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류현진보다 한 살 어린데도 실력만큼이다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춰 리더로 대접받고 있다.

커쇼가 라커룸에서 류현진에게 재털이를 건넨 사연이었다. 류현진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커쇼가 불렀다. 그리고 재털이를 건네면서 "그냥 이곳에서 피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라커룸 흡연은 금기사항인데도 아무도 커쇼의 행동을 탓하지 않았다. 그때 류현진은 커쇼의 존재감을 피부로 느꼈다고 한다.

커쇼의 이 같은 배려에는 류현진의 존재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류현진은 작년 루키로 14승을 따냈고 올해도 13승을 올려 다저스의 보물 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커쇼, 잭 그레인키와 함께 부동의 3선발투수로 팀의 지구 1위를 이끌고 있다. 팀을 함께 이끈다는 동질감의 표현이었다.

물론 류현진의 섬세도 작용했을 것이다. 커쇼는 류현진이 팀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지켜봤다. 지난 3월 호주 원정 개막전에서 공어 완전치도 않는데도 등판을 감수했다. 이것이 부상으로 이어져 한 달 가깝게 빠졌다. 커쇼의 류현진에 대한 애정이 재털이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두 젊은 투수의 교감과 우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OSEN 야구전문기자

손연재 AG 경쟁자 압도

FIG 월드컵 종목 결선 동메달 2개 추가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가 국제체조연맹(FIG) 리듬 월드컵 개인종합에 이어 종목별 결선에서도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손연재는 10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대회 종목별 결선 후프와 볼 종목에서 각각 3위에 올랐다. 곤봉에서는 4위, 리본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전날 열린 개인종합에서 70.250점으로 동메달을 땄다. 올 시즌 출전한 6개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따낸 손연재는 강자들이 총출동한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거머쥐며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기대를 높였다. 손연재는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린다.

종목별 결선 후프에서 손연재는 17.900점으로 세계 최강 야나 쿠드랍체바(러시아·18.600점)와 벨라루스의 멜리티나 스타니우타(17.950점)에 이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번째 종목인 볼에서는 17.700점으로 쿠드랍체바(18.750점), 마르가리타 마문(러시아·18.450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곤봉에서는 17.750점, 리본에서 17.450점을 받았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손연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중국의 덩썬웨는 후프(17.200점)와 볼(17.350점)에서 각각 5위, 4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아시안게임 경쟁자인 엘리자베타 디자렌코바(우즈베키스탄)는 볼(17.250점)과 곤봉(16.950점)에서 5위, 리본(17.100점)에서 7위에 그쳤다.

손연재는 월드컵에 한 차례 더 출전한 뒤 9월 말 터키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귀국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유순호기자

류현진 14승을 위한 완벽한 조건

하루 더 휴식 14일 애틀랜타전 등판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선발 예고 하루 만에 등판 일정이 변경되면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에이스와 맞대결한다.

13일 애틀랜타전에 선발할 예정이던 류현진은 하루 늦춰진 14일 오전 8시10분 미국 조지아주 터너필드에서 열리는 애틀랜타전에 나선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이 새로 영입한 우완투수 케빈 코레이아의 첫 등판일을 12일로 정하면서 류현진은 하루 추가 휴식을 갖게 됐다.

이로써 류현진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5일 휴식 후 등판'을 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5일 휴식 후 등판한 경기에서 11승 2패 평균자책점 2.79를 기록했다.

등판 일정이 바뀌면서 더 강한 투수를 상대하게 됐다. 애틀랜타는 14일 선발로 메이저리그 통산 116승(96패)을 기록한 어빈 산타나를 예고했다. 산타나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상대할 투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36승(31패)에 불과한 마이크 마이너였다.

그러나 류현진은 산타나에 밀리지 않는 성적을 기록 중이다. 올 시즌 애틀랜타 최다승을 달리고 있는 산타나는 11승 6패 평균자책점 3.69를 기록 중이다. 류현진은 13승 6패 평균자책점 3.21로 산타나에 앞서 있다.

류현진이 이날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올해 팀 내 커쇼와 함께 팀 내 최다승 투수로 올라설 수 있다. 또 커쇼, 조니 쿠에토(신시내티 레즈), 애덤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윌리 페랄타(밀워키 브루어스) 등과 함께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선두에도 오를 수 있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1일

■ 잠실

팀	1-3	4-6	7-9	계
한화	400	000	000	4
LG	100	000	100	2

[illegible]

■ 목동

팀	1-3	4-6	7-9	연장	계
삼성	021	001	020	1	7
넥센	100	230	000	0	6

[illegible]

■ 마산

팀	1-3	4-6	7-9	계
SK	010	000	001	2
NC	000	151	00X	7

[illegible]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처음처럼
부드러운 소주